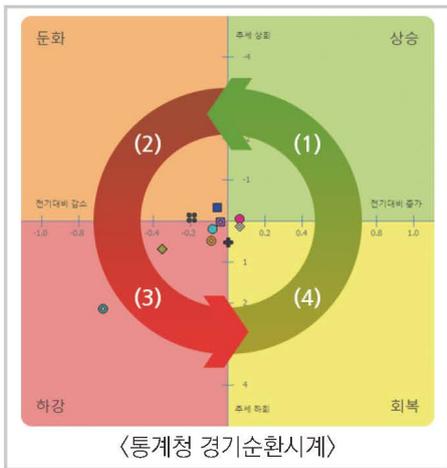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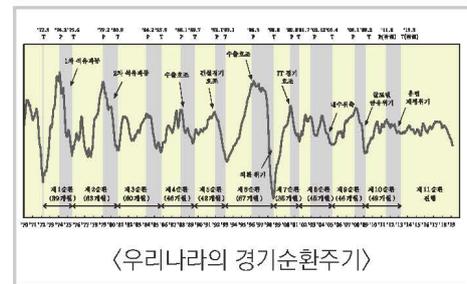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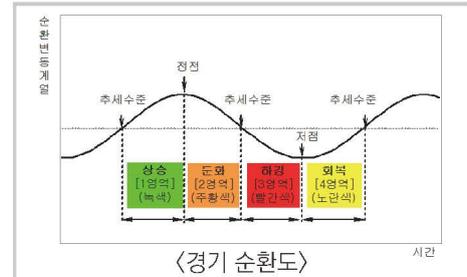




## 요즘 경기 어떨까요?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오르고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다고 이야기 한다.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면 경기가 나쁘다고 말한다. 이처럼 경기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경제상황을 의미한다. 경제상황은 끊임없이 상승, 둔화, 하강, 회복의 과정을 반복한다.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려면 경기의 순환변동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은 통계청이 '기준순환일(Turning Point)'을 지정함으로써 결정된다. '기준순환일'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생산과 소비 등 주요 경기지표와 경제총량지표인 국내총생산(GDP) 그리고 경기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청이 확정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11순환기에 속해 있다. 제11순환기는 2013년 3월 지점 이후 경기증세가 지속되었으며, 순환기의 정점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준순환일'의 지정은 각종 경기조절대책의 대응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개별 경제지표들을 선행, 동행, 후행 지표로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경기순환 특성과 경기변동 행태를 연구하는데 기본적 판단 근거가 되는 중요한 경기판단지표이다.

통계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지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여 그래픽 형태로 '경기순환시계'를 개발하여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경기순환시계'는 주요 경제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경제지표가 경기순환국면(상승, 둔화, 하강, 회복)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사분면 좌표평면상에서 보여주는 도구로 일반인들이 경제상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있다.

### 경제통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조사,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9종의 경제통계 조사를 통합하여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국가 승인통계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는 통계법에 따라 응답의무가 있다. 또한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다.

### QUIZ

#### 통계퀴즈

Q. 6월 12일부터 실시하는 2018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몇 종의 경제통계를 통합한 조사일까요?

- ① 6종      ② 7종      ③ 8종      ④ 9종

※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QR코드로 검색하시거나 페이스북 '경인지방통계청'에서 퀴즈에 응모하시면, 정답자 20분을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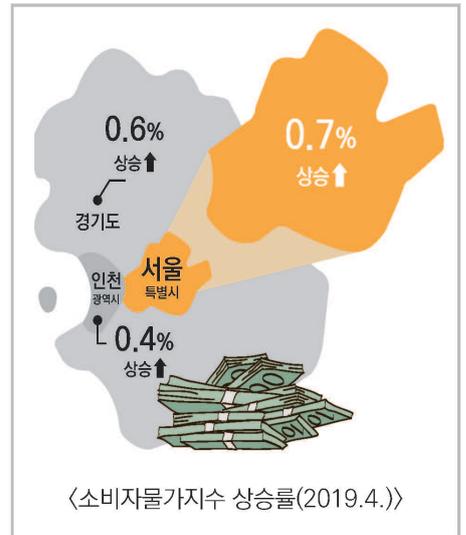


##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가 다른 이유는?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1월 0.8%, 2월 0.5%, 3월 0.4%, 4월 0.6%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은 1%를 밑돌았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보면 실제 물가는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체감물가와 공식 소비자물가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통계청의 물가조사는 대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이다. 통계청은 소비자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460개 상품과 서비스의 대표품목 가격을 조사한다. 하지만 물가에 대한 체감은 지역·연령·소득·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고 주관적이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전체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비중을 근거로 대표품목의 가중치를 정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서는 대표품목의 가중치에 따라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이 외에도 사람들은 본인이 자주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 흐름에 민감하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적으로 가격이 내리는 것보다 오르는 것에 더 민감하게 느끼며, 지출이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혼동하기도 한다.

통계청은 공식 물가의 현실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물가지수, 신선통계식품지수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작성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존 품목의 대표성이 낮아지거나 상실될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대표품목을 변경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세상기자단 김현정>



## 취업이 이렇게 힘든데, 실업률은 겨우 4.4%?



2019년 4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실업률은 4.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체감 실업은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 공식실업률은 왜 낮게 느껴질까?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실업'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식통계의 실업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또한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공식 통계에 나타난 실업자는 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②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③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통계청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고용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에는 실업자 외에도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포함하며,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집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하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도 함께 개발·공표하고 있다.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 또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세상기자단 신이정>

구리사무소는 4월 구리시 체육관에서 열린 전계층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지역주민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상담을 제공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500여명의 구직자들이 방문하여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구리사무소는 구직자들에게 통계조사원 채용 일정과 조사종류, 지원방법 등을 안내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통계조사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통계세상기자단 박두선>





###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수도권 통계허브, 경인지방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위해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5월 경인지방통계청은 2019년 책임운영기관 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수도권 지자체 노인복지 행정 통계, 영유아 행정통계,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전통시장 상권분석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역특화 통계의 개발·지원을 선도한 결과에서 나왔다. 경인지방통계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 받는 정부’ 등 3대 국정전략을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에 적합한 실행과제를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손영태 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관운영 방향을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국민과 함께 수도권의 통계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통계세상기자단 최현숙>

약자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역특화 통계의 개발·지원을 선도한 결과에서 나왔다.

경인지방통계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 받는 정부’ 등 3대 국정전략을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에 적합한 실행과제를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손영태 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관운영 방향을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국민과 함께 수도권의 통계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통계세상기자단 최현숙>

### 청와대에서 백령도까지



사회조사과는 5월 다문화·외국인 가구를 초청하여 응답자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담당자와 응답자 가족들은 청와대와 국립고궁박물관을 함께 관람하고 전통문화도 체험했다. <통계세상기자단 조경수>



인천사무소는 5월 서해 최북단 백령면사무소와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현지 통계조사원 채용과 도서지역 학생들의 통계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통계세상기자단 이담비>

### 더 나눔 사랑의 바자회로 이웃사랑 실천

지난 4월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광장에서 불우 이웃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바자회가 열렸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고양사무소 직원들의 기증품과 통계조사 응답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품을 판매했다. 주변 직장인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통계세상기자단 김은경>



### 직장인이 생각하는 끈대 모습



### • 쉬어가는 페이지 •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끈대는 은어로 ‘늪은이’를 이르는 말이자,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853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끈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90%가 ‘사내에 끈대가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끈대는 어떤 모습일까? 23%의 응답자가 “내 말대로 해” 답정너 스타일을 1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까라면 까” 상명하복식 사고방식(21%)이 2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전지전능 스타일(16%)이 3위를 차지했다. 더불어 여자(14%)보다 남자(86%)가 더 많이 끈대 성향을 보인다고 답했으며, 끈대의 나이는 평균 ‘50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세상기자단 김선옥>

아는데” 전지전능 스타일(16%)이 3위를 차지했다. 더불어 여자(14%)보다 남자(86%)가 더 많이 끈대 성향을 보인다고 답했으며, 끈대의 나이는 평균 ‘50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세상기자단 김선옥>

## 방글라데시 대표단 서울사무소 방문



방글라데시 기획부/통계청 연수단이 5월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통계 조사 현황을 시작으로 전자조사(CAPI,SAS)방법과 통계자료 처리에 대한 시연으로 진행되었다. 연수단은 대규모 사업체 본사가 집중되어 있고, 맞벌이·단독가구가 많아 면접조사가 어려운 조사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전자조사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서울사무소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계세상기자단 김인숙>

## 어려운 통계, 경인지방통계청과 함께해요!

### 젤리밥 통계를 아시나요?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인 수원사무소는 교육부에서 개최한 2019년 진로체험 사업설명회에 통계청 대표로 참석했다. 수원사무소에서 발표한 '젤리밥 속 통계'는 시도에서 참석한 장학사, 교육청관계자, 지역 진로체험단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와 기관은 교육부 진로체험지원전산 '꿈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통계세상기자단 신정원>

### 1. 젤리밥 속 통계...



### 가천대학교 통계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남사무소는 5월 가천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통계진로체험을 실시했다. 통계직 공무원 되기, 통계패키지 R 분석기법, 데이터시각화와 인포그래픽, 빅데이터 교육 등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정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통계세상기자단 조수영>



### 수도권 최고의 통계전문도서관 '나라셈도서관'을 아시나요?

나라셈도서관에는 4만 권 이상의 국내외 통계 도서를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전문가의 친절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통계진로체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전화: 02-3438-8500, 주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별관 4층)



### 이런 책도 있어요!

「30분 통계학」은 일본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30분 시리즈 중 하나로 통계학 편은 통계학을 이루는 100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로 20개의 강의로 구분되어 있고, 각 개념별로 그림으로 된 예시가 있어서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어려운 수식을 지양하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 정리, 요약, 분석 등 활용방법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통계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 유용하다. 이 책은 목차 순서에 따르지 말고 독자 상황에 맞게 읽어가길 권한다. <통계세상기자단 허경웅>

### 경인지방통계청 관할 사무소

사무소	전화	담당지역
과천본부	02-2110-7600	서울 강남 11개 구,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서울사무소	02-6327-3904	서울 강북 14개 구
인천사무소	032-460-2500	인천광역시
- 부천본부	032-460-2700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수원사무소	031-232-6441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 평택본부	031-658-8317	평택시, 안성시
성남사무소	031-780-0600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 이천본부	031-640-9400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사무소	031-860-3501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고양사무소	031-936-5100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구리사무소	031-560-7000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 2018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 안내

- 조사대상 : 국내 대상 사업체
- 조사통계 : 기업활동조사 등 9개 조사
- 조사시기 : (1차) 2019. 6. 12. ~ 7. 26.  
(2차) 2019. 8. 12. ~ 9. 27.
- 조사방법 : 방문조사, 인터넷조사
- 관련문의 : 02-2012-9114 (통계청 콜센터)  
지역 통계사무소

※ 본 소식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통계세상기자단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계청 또는 경인지방통계청의 공식의견은 아닙니다.